

24시간 응급수술 가능... 든든한 거점병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 체계를 갖춘 조선대병원 광주권 권역응급의료센터 내부.

(조선대병원 제공)

조선대병원 '광주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 환자 최종 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거점병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주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고,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지 만 일년이 됐다. 중증응급환자 치료, 응급진료 및 전원 시스템 강화, 응급 의료종사자 교육,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개 주요 진료과, 24시간 교수 진료와 응급수술 가능=권역응급의료센터는 10개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교수가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지난해 운영초기 내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환자 진료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조선대병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진 보강 ▲전원율 감소 및 환자대기시간 단축 ▲전원 의뢰에 대한 시스템 강화 ▲운영체계 정비 등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했던 순환기내과 심장혈관 질환 수술의 권위자인 교수 4명을 추가 채용해 현재는 9명의 교수가 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한 결과, 응급실 순환

개소 1년 맞은 조선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대폭 보강...환자 도착 즉시 검사·수술 원스톱 처리

'제2 메르스' 차단 격리병상에 중증환자 간병서비스 확대

기내과 진료환자 수가 예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골든타임이 90분에서 120분 이내인 응급을 요하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환자가 병원에 도착 즉시, 검사와 처치(수술)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응급환자 진료 위한 완벽한 의료인프라 구축=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 8명, 전공의 10명, 간호사 42명, 응급구조사 9명, 응급의료정보관리사 2명 등 전문인력과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 중증응급환자의 교수 진료와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센터 내 응급환자 15병상, 중증응급환자 8병상, 감염격리 2병상, 일반격리 3병상, 소아응급환자 4병상, 응급병동 30병상, 응급중환자실 22병상 등 총 84병상을 갖추고 진료구역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구역별 시스템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증응급환자의 처치가 이뤄진다.

CT, MRI, 초음파검사기, 급속혈액가

온주입기, 중심제온조절유도기, 이동환자 감시장치 등 중증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도 갖추고 있다.

<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 운영=감염관리로 큰 주안점을 두고 센터 내 감염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출입문은 2개가 설치돼 있고 응급실로 들어가기 전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열 체크와 문진을 거쳐 감염병의 의심되는 환자는 별도의 감염치료구역 출입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출입문은 감염격리실로 연결되어 일반환자와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보호자도 출입자 명단에 등록된 1인에 한해 보호자증을 발급 받아야 응급실 출입이 가능하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등 국가재난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1차래, 올해 1월 2차례의 '신종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외래진료센터(3관) 개소 통해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조선대병원은

지난 2월 약 9917.3㎡(3000평) 규모의 3관을 개소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 9개 진료과를 비롯 중환자실, 병동 등 다양한 의료 인프라를 갖춰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응급중환자실과 응급병동 이전을 통해 진료환경을 개선했고 응급실과 최단 거리에 배치하고 국가 지정 응급 입원 치료병상(5병상)과 격리병실을 갖추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 내과계 환자를 대상으로 46병상 간호·간병서비스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시하는 수준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병동의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중증환자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홍 조선대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주시 관련기관, 지역 의료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유해 나가겠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기관이자 재난거점병원으로서 권역 내 응급환자의 책임 치료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장인 김성중 교수가 병원 기획실장을 겸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미세먼지 6년 연속 최저·전용 앱 개발 광주시 환경보전계획 추진 성과 눈길

광주시가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제5차 환경보전계획(2013~2017) 4년차인 2016년 각 부문별 추진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전계획 5개 분야 77개 사업 4년차 추진상황 평가결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농도(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 6년 연속), 공원 확보율, 폐기물발생량 등 12개 지표가 이미 2017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16년 분야별 투자실적을 보면 지속가능분야 828억(53%), 생활환경분야 763억(25%), 자연환경 및 자원관리 685억(22%) 등이다. 이는 광주시가 지속가능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5차 환경보전계획 5개 분야 77개 사업 가운데 4년차인 2016년 주요 성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네환경을 개선하는 다가치그린 모바일 앱 개통으로 시민 중심 환경행정 기반을 마련했고, 국립야생동물보전연구원 건립지 확정 및 본격 추진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전에 영산강 하천수를 공급해 풍부한 물이 흐르는 지역의 강을 조성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본격운영,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사업 준공, 제1하수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현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타났다.

광주시가 국비와 민자를 포함해 총 3097억원을 투자한 분야별 추진사업은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 10개 사업(완료 3, 추진중 7)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2개 사업(완료 3, 정상추진 29) ▲풍부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유지 20개 사업(완료 1, 정상추진 18, 중단 1) ▲녹색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 4개 사업(완료 2, 정상추진 2)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11개 사업(완료 2, 정상추진 9)이다.

또 환경보전계획 달성을 위해 설정한 27개 지표 가운데 12개 지표가 당초 목표를 달성했고 15개 지표는 연말까지 달성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분야별로는 ▲자연환경 2개 지표(목표 달성 1, 추진중 1) ▲생활환경 15개 지표(목표달성 7, 추진중 8) ▲자원관리 6개 지표(목표달성 3, 추진중 3), 지속가능 4개 지표(목표달성 1, 추진중 3)이며, 미세먼지 농도(45→40㎍/㎥), 공원확보율(9.2→13.45%), 하수처리장 목표수질(BOD 4.5→2.5㎎/ℓ, T-P 2→0.143㎎/ℓ), 폐기물발생량(0.95㎏/인·일)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지표들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병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제5차 환경보전계획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선도시 비전을 달성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불법 음식물분쇄기 14일까지 단속

광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공공 하수도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구·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 제품이 아닌 제품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

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일반 가정을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할 계획이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제품에 엄정 대처하고 시민 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뿌리뽑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도심서 나무 사랑 실천해요"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제7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원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광산구 하남동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사직원, 하남국민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해 아파트 주변 진입로 경사면 100m 구간에 무궁화, 벚꽃

나무, 철쭉 등 2000그루를 심었다.

도시공사 박문기 사장직무대행은 "빈공터에 어린나무를 심어 미래의 푸른 공간을 만들어 가듯이 노사가 함께 노력해 광주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우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 평당 60 ~ 100 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 H.010-3605-5000